

# ‘안철수 쓰나미’ 서울시장 보선 ‘시계제로’

## 초반 여론조사 압도적 1위...무소속 출마 가능성

## 여야 선거전략 전면 수정...총선·대선 판도 촉각

‘안철수 쓰나미’가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구도를 강타하면서 여야에 초비상이 걸렸다.

이번 선거에서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높은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초반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1위라는 돌풍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안 원장이 이르면 1~2일 사이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여부를 밝힐 예정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5일 중앙일보와 한국갤럽이 서울시민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안 원장은 39.5%의 지지율을 기록, 2위 한나라당 나경원 최고위원(13.0%)에 세 배 이상 앞섰다. 민주당 한명숙 전 총리는 10.9%, 정운찬 전 총리 3.6%,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3.0%였다.

안 원장(50.0%)은 나 최고위원(23.6%)과 박 상임이사(10.0%)의 3자 구도는 물론

나 최고위원(22.0%)과 한 전 총리(14.9%)의 3자 대결에서도 49.5%의 지지율로 1위를 기록했다.

국민일보와 GH코리아가 같은 날 서울지역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안 원장은 36.7%를 기록해 나 최고위원(17.3%)과 한 전 총리(12.8%), 박 상임이사(5.0%)를 압도했다.

이처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초반 여론조사에서 안 원장 독주체제가 확인되면서 선거 판도는 크게 요동치고 있다.

여야는 여론조사 결과에 당혹해하면서 다각도의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당장, 복지 논쟁과 중도층 흡수에 초점을 맞췄던 여야의 선거 전략도 전면 수정에 들어갔다.

한나라당은 ‘안철수 대항마’ 물색에 나서는데 한편으로 안 원장의 야권통합행(行)을 막기 위한 대책에 부심했다. 안 원장이 공식적

으로 한나라당으로 갈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인기투표 정도로 봐야 한다”며 애써 의미를 축소하면서 농담조로 “혹시 손석희 교수가 출마할 생각은 없는가, 정말 생각이 있다면 한나라당에서 모시겠다”고 즉석 제안했다.

민주당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통합 결렬이라는 돌발변수에도 불구하고, 야권통합 후보 선출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안 원장을 반(反)한나라 전진 구속에 끌어들이기 위한 묘책을 고심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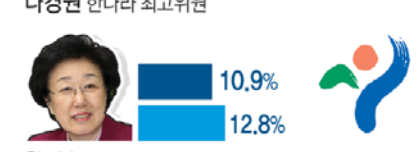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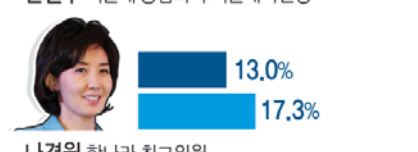
손학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나라당에 반대하는 이들은 모두 한배를 타야 한다”며 안 원장의 야권 통합후보 경선 참여를 촉구했으며 박선숙 전략홍보본부장은 “안 원장이 반한나라 전진 구속에 동참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안철수 쓰나미가 현실화할 경우, 현재의 양당 구도를 축으로 하는 기존의 정치 질서가 재편되는 것은 물론 내년 총선과 대선 판도까지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서울시장 예비후보군 대상 여론조사

중앙일보 3일 한국갤럽에 의뢰 서울시민 1,006명 대상 실시

국민일보 3일 GH코리아에 의뢰 서울지역 유권자 500명 대상 실시



연방뉴스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로 거론되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과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간 연대설이 나오고 있다. 2009년 9월 서울 연세대학교 대우관에서 특강을 함께한 안철수 원장과 박원순 상임이사의 모습. /연합뉴스

## 안철수-박원순 연대론 ‘술술’

### 주초 회동 대화 나눌 듯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로 거론되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과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간 연대설이 제기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두 사람 모두 기존 여야 정당과 거리를 유지하며 무소속 출마에 방점을 두고 있는데다 개인적으로 매우 가까운 사이여서 힘을 합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관측 때문이다.

두 사람의 인연은 안 교수가 박 상임이사를 ‘마음 속 깊은 응원자’로 표현할 만큼 끈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안 원장은 박 상임이사가 아름다운재단을 만들 때 자청해 재단이사를 맡고, 박 상임이사의 희망제작소 내 희망아카데미 ‘소셜 디자이너 스쿨’에도 안 원장이 고정 강사로 나올 만큼 관계가 돈독하다.

두 인사의 연대 방식으로 후보 단일화 방

안이 거론된다.

안 원장은 5일 한 인터넷 매체와 인터뷰에서 “최근 박 상임이사로부터 장문의 e메일을 받아 답을 드렸다”며 “이번 주초에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눌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 원장은 “정말로 그 분이 원하시면 그쪽으로 밀어드리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고지했다. 자신이 불출마하는 대신 박 상임이사 지지를 선언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무소속 출마에 방점을 찍은 안 원장과 달리 박 상임이사는 야권 연대라는 큰 틀에서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주자로 분류돼 있다는 점이 변수다.

윤 부소장은 “안 원장이 무당파라면 박 상임이사는 미우나 고우나 야당 세력과 함께 해야 한다는 생각이 가깝다”며 “서로 다른 포지션 때문에 박 상임이사에 여러 생각이 복잡할 것”이라고 전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안철수 돌풍 속 ‘제3정당’ 출범하나

### 안 “한나라는 확실히 아니다”...야권통합 후보 여지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무소속 출마를 적극 검토 중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면서 기성 정당들에 경종을 울림과 동시에 제3의 정치세력 등장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물론, 안 원장이 기성 정치권과 거리를 두면서도 야권 통합후보로 나설 가능성은 열여놓음에 따라 제3당의 등장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망되나 안 원장 주변 일각에서는 이를 염두에 두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안 원장은 지난 4일 방송된 MBC ‘시사매거진 2580’과 인터뷰에서 “무소속 후보로 나서게 되느냐”는 질문에 “그것도 넘겨짚은 측면이 있다. 내가 얘기했던 것은 양당구조의 문제점으로 이쪽도 희망은 아니고 저쪽도 대안은 아니라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아니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야권 통합후보로 나설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건 잘 모르겠다. 그쪽은 생각 정리만 했다”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안 원장의 대중적인 인지도와 20~30대의 지지, 기성 정당에 대한 정치 혐오 등 감안하면 기존 정치지형을 뒤엎고 내년 총선·대선 판도를 바꿀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진보·보수 이분법으로 나뉜 정치 구도를 깨려는 제3 정치세력화 시도가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안 원장이 무소속으로 서울시장에 당선되고 정치세력화에도 성공하면 정치권에 ‘빅뱅’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제3당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역대로 개인기를 바탕으로 창당한 사례가 적지 않으나 대부분 실패했기 때문이다. 지난 1997년 대선 당시 신한국당 이인제 후보가 당내 경선 결과에 불복하며 탈당해 국민신당을 창당했으나 10개월 만에 문을 닫았고, 2002년 대선을 앞두고는 당시 무소속 정몽준 의원이 국민통합21을 창당했지만 1년 10개월 만에 해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출마’ 고민 깊어지는 한명숙

### 안철수·박원순 사이 금주중 출마 여부 발표 관심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10·26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각종 여론조사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선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안 원장 바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거론되는 후보들 중에는 여전히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유명인사들의 초반 지지율에는 거품이 있었지만 안 원장의 지지율도 선거전이 치열해지면서 빠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한 전 총리가 출마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백원우 의원을 비롯한 당내 40여 명의 친노(親盧) 인사들은 지난 4일 회동을 하고 “서울시장 선거가 내년 총선과 대선 승리를 위한 야권통합의 교두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한 총리보다 나는 후보는 없다”고 결론짓고 한 전

총리의 출마를 종용했다.

그러나 한 전 총리는 고민을 거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장 보선 국면에서 경선 후보 난립, 주류-비주류 갈등 등으로 민주당에 대한 민심이 좋지 않은데다 가까운 사이인 박원순 변호사가 ‘시민후보’로 범야권 통합 경선 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그렇다고 마냥 외면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이와 관련, 백 의원은 5일 “한 전 총리는 자신의 문제로 고민하는 것이 아니다”며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나와야 한다는 생각이 확고하다”고 전했다.

한 전 총리 주변에서는 주말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만큼 금주중 출마 여부를 밝힐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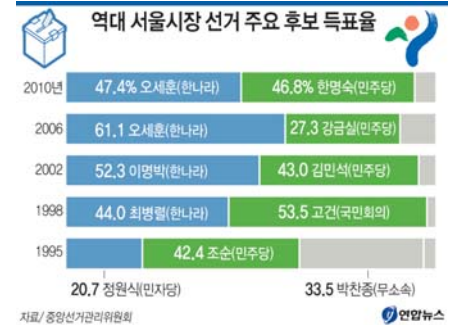
### 1995년 무소속 출마 박찬종

#### “안철수, 95년보다 상황 좋다”

1995년 첫 서울시장 선거에 무소속 출마했다가 패한 박찬종 전 의원은 5일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온다면 16년 전 내가 나설 때보다 상황이 많이 좋다”며 “무소속 출마의 명분과 취지를 분명히 밝히면 틀림없이 당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박 전 의원은 여론조사에서 40% 안팎의 지지율로 1위를 지키다 실제 선거에선 무소속 출마자가 울림 득표율로는 역대 최고인 33.5%를 얻었으나 민주당의 조순 후보(42.4%)에게 패했다.

박 전 의원은 이날 “당시 1995년 선거에서 김영삼 대통령은 민자당 정원식 후보를, 김



대중 전 대통령과 김종필 전 총리는 ‘1차 DJP 연합’으로 민주당 조 후보를 지지했다”며 “나는 경상도·전라도·충청도 맹주들과 대결한 것인데 지금은 ‘3김(金)’ 정치인 시대가 지나갔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는 또 “여론조사에서 40%를 기록하다 실제 투표를 여부가 5~6%포인트가 빠졌다”며 “안 원장은 지금 50%대 지지율로 나오니까 그때보다 열풍이 더 강하다”고도 했다. /연합뉴스

**뜻밖은 돈!**  
합법적으로 받아드립니다!

■ 채권의 유형

채권의 유형	대상 채권
상거래 채권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
매매 채권	부동산, 동산, 준부동산
금전소비대차 채권	대여금, 투자금, 약정금, 갚돈 등
임차권 채권	주택, 상가, 차량, 중기 등의 사용료 대여료, 보증금
임금 채권	급여(정규, 일용)
기사	위자료, 양육비, 재산분할, 부양
구상권	보증인 구상, 신원보증 구상, 변제구상(제3자)
기타	저작권, 부당이익, 형사 합의금, 기타

차용증, 지불각서 상담

**sm 솔로몬신용정보**  
대표전화 062)606-9000 영업팀장(문체준) 010-5311-0086

윤성채팅의 선가득  
대한민국 최초!  
**무료음성커뮤니티**

진실입니다!  
그동안 비싼 060 정보이음료나 고액의 회원가입비를 내야만 사용할 수 있었던 음성채팅서비스, 이제 옛말이 되었습니다.

정말 공짜입니다!  
정보이음료 무료  
회원가입비 무료

일반 전화요금 외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화요금은 추가비용이 단 1원도 없이 그냥 일반요금입니다. 직접확인하세요!

휴대폰만 사용 가능합니다. **1688-7958**

보급요금방 >>> 10년 음성 소실방 >>> 07년 여행정보방 >>> 12년 연인만들기방 >>> 09년 매너만남방 >>> 10년 1:1 대화방 >>> 19년

14년 전통 핫트론

가입문의 **062-526-7958** 전국 최저 요금제

여성무료 **080-331-7958**

365일 24시간 1:1 상담, 연결

소자본, 무점포, 고소득 ARS사업자 모집 **010-3608-2888**

옥상·외벽·내벽·주택 **방수**

전·문·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지하실,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마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침투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기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 한 번 시공으로 반영구적이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 를 꼭 확인하세요...

ENG, 이앤지 방수, 바닥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방수**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